

포스코,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건설

특수목적법인 신안풍력복합발전 설립 ... 2011년 말 9Mw 풍력발전 완공

포스코ICT가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를 개발한다.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태천리 일대에 국내 최초의 민간사업자에 의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상호 연계되는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포스코ICT는 동양건설산업과 공동 출자를 통해 특수목적법인(SPC)인 신안풍력복합발전(주)을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2011년 12월 완공예정인 신안풍력 복합발전 단지는 국내 최초의 민간발전사업자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 복합발전단지로, 기존에 동양건설산업이 설치한 동양최대 규모의 24Mw급 추적식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9Mw급 풍력발전소가 추가로 구축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 33Mw의 신·재생 에너지 복합단지가 구축되고, 태양광과 풍력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풍력복합발전의 발전 설비용량인 9Mw의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연간 1만8000MWh 이상의 전기가 생산돼 약 50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양건설산업 최건 사장, 포스코ICT 최승갑 전무, 두산중공업 심규상 사장 등 150여명의 사업 관계자와 관련기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2월14일 기공식을 개최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화학저널 2010/12/16>